

한국작물보호協, 준회원과의 간담회 개최



한 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엄병만)는 지난 5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올해 신규로 가입한 준회원 7개사와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내부 행사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스토토화학 아그로서울(주)를 제외한 6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 운영 및 부서별 업무현황 설명에 이어 당면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현재까지 한국작물보호협회 준회원 가입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최초로 가입한 스토토화학아그로서울(주)를 비롯하여 한국바스프(주), 에프엠씨코리아(주), (주)신영아그로, 아진케미칼(주), 다우아그로사이언스 인터내셔널(주), (유)듀폰 등 모두 7개사로 늘 어났다.

듀폰, 한국작물보호協 준회원 가입

(유)듀폰(대표 원철우)이 지난 5월 18일 한국작물보호협회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농약 원제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듀폰은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준회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곱 번째 회원이 되었다.

이번에 준회원으로 가입한 (유)듀폰의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6 아세아타워 5층이며

전화번호는 02-2222-5313번, 팩스번호는 02-2222-5484번이다.

한편 올해 명칭을 변경한 한국작물보호협회(구 농약공업협회)는 지난해 11월 작물보호산업 관련 기업이 작물보호제로서의 올바른 이미지 제고와 농약안전성 홍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회원 제도를 도입키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바 있다.



경농, 차별화전략 통해 친환경농자재 사업 참여

경농 (대표 이병만)이 철저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자재 사업에 나섰다.

(주)경농은 농산물시장 개방과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요구,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발맞추어

지난해 과일·채소의 신선도유지제인 「스마트프레쉬」와 식물활력강화제인 「누네띠네」 등 친환경농자재 2종을 출시한데 이어 올해에는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천연식물추출물 「푸른손」 「은하수」 「왕중왕」 「보검」 「베스탑」,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촉진제 「제누스」 등 6종을 출시하는 등 본격 참여한다.

경농측은 “현재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친환경농자재가 시판되고 있으나 친환경농자재의 품질과 안전성 등에 대한 법규정이 명확히 제



시되어 있지 않아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성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경농이 친환경농자재 자체검증시스템을 확립, 제품의 효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물론 농약관리에 준하는 효과시험 및 인축, 환경독성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약잔류성분 검사 및 중금속 분석시험 등 유해성분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상의 품질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한농, 환경캠페인 「우리 산 푸르게!」 행사 가져



동부한농은 지난 5월 1일 청계산에서 환경캠페인 「우리 산 푸르게!」 행사를 갖고 자연보호 활동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본사 경영지원실 임직원 약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진 이날 행사는 또 임직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바람직한 선진 기업문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은 “자연에서 호흡하며 잠시나마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좋은

신젠타, 「그라목손 인티온」 출시회 가져

신젠타 코리아(주)가 지난 5월 8일 경기도 평택에서 올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그라목손 인티온」 출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초청한 200여 농가를 비롯, 대표이사인 스티븐 호킨스, 스위스 바젤 본사의 그라목손 인티온 책임자 안드레 디아스, 테크니컬 담당자 알라드 장 루이스와 과학자 이안 켈라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시 축하행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그라목손 인티온」을 살포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 4일전 미리 약제를 살포한 포장물 공개함으로써 농가들이 직접 「그라목손 인티온」의 효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안드레 디아스 스위스 바젤 신젠타 본사 「그라목손 인티온」 매니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더불어 한국에서 첫 번째로 등록돼 선보이게 됐다”면서 “2008년이면 유럽과 남미 국가에도 등록 될 예정으로 있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믿을 수 있는 제품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제품 설명을 진행한 이계형 이사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알지네이트를 첨가하여 체내 흡수량을 감소시키고 바로 구토하도록 만들었으며 냄새를 없앴다”면서 “그러나 기존 제품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라목손 인티온」은 40여 년간 전 세계 수많은 농가들이 애용한 그라목손을 8년간의 연구 끝에 새롭게 만든 것이며 기존 그라목손의 효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번에 출시된 것이다(문의 : 1588-3889).

기획였다”며 소감을 나타냈다.

농진청·업계, 농약관련 현안 협의 간담회 가져

농촌진흥청과 농약업계는 지난 5월 2일 농진청 대강당에서 농약의 등록시험기준과 방법 및 시험·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등 농약등록 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화성시 궁평리로 자리를 옮겨 농약관리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농진청 및 농과원 관계자와 제조·수입업체 본사 및 부설연구소 담당자, 한국작물보호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화정박물관 개관기념전, 성황리 막 올라

한국삼공 (주) 대표이사 한광호 회장 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한빛문화재단·화정박물관의 개관식이 지난 5월 29일 성대하게 치러졌다. 기업 활동에 정진하면서 40여 년간 수집해온 한국과 동아시아의 미술품들은 현재 한빛문화재단·화정박물관의 기반이 되고 있다.

개관전의 명은 <화정박물관 개관기념 특별전 : 아시아를 조망하는 눈 Gazing upon Asian Art> 이다. 화정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유물인 티베트 탕카를 비롯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명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였다. 1층에는 2003년 대영박물관에서 선보였던 최고 수준의 탕카들이 국내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2층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유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아 이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특별히 대영박물관 한국실의 대표유물인 ‘달항아리’를 한 달간 대어 전시한다.

1999년 개관 이래 이태원의 본관 전시장과 평창동의 분관을 통해 나누어 전시를 해왔지만 전시공간의 확충과 시설 보안을 위해 2004년 봄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재개관하는 박물관의 위치는 종로구 평창동. 분관이 있던



건물 부지 옆에 새 박물관 건물을 지어 두 개의 전시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의 건물은 연구실 및 수장고로 리노베이션 하였다.

동양미술 전반에 걸쳐 훌륭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화정박물관의 재개관은 평창동의 문화적인 특색을 더하며 평창동 문화벨트에 생기를 불어 넣으리라 본다. 화정박물관과 같은 고미술품 전문 박물관의 등장은 현대미술 전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가나아트 센터와, 환기미술관, 토탈 미술관과 더불어 평창동 일대 미술전시의 다양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8월 30일까지 무료개관이며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은 휴무이다.

간담회에서는 동일품목 동일라벨화 가이드라인 자율이행과 등록신청 및 유통농약의 검토 개선 대책 추진, 농약제품 포장지 표기내용 전면 검토, 농약 등록시험 성적서 신뢰성 확보 위한 시

험 능력 점검, 시험학술연구용 농약 발급관련 및 농약 제조·수입업 등록관련 사항, 친환경농자재 목록 공시제 도입 등 현안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